

[기획연재 4] 선교와 한국교회

구속사적으로 본 한국교회와 이스라엘 선교

김해리 권사 / 1994

5) 미국에서 한국으로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19세기 말에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인들이었다. 이때 한국은 정치적으로 쇠국정책 안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무속신앙, 불교와 유교 등 오랜 전통에 젖어있었다.

1884년 9월에 재물포에 입항한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존가수처를 선두로 스크랜턴과 아펜젤러, 장로교단에서는 언더우드, 존 헤론, 알렌 등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당시 은둔의 나라로 불리던 한국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준 이를 선교사의 활동으로 한국은 복음의 나라로 발전해왔다.

◎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한국교회는 개신교 미국선교사 언더우드와 알렌이 1884년 4월에 인천에 상륙한 이래 이제 선교 2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회의 숫자는 3만 2천여교회에 이르고 신자 일천이백만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4000명을 넘었고 해외선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교회마다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내적 여건으로는 정치적 안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을 향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고도의 기술 개발에 정부와 기업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86년 아시안 올림픽과 88국제 올림픽 대회를 통해서 전세계에 위성과 TV로 한국의 모습이 소개되어 오천년 역사 이래로 한국을 가장 널리 알리게 되었다.

구소련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냉전시대는 종식되어가고 있고 소련에 선교의 문이 열렸으며 중국과 몽고가 서서히 그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1990년 1월 다국적군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아랍과 회교권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 문물이 흘러들었다. 북한도 머지 않아 문을 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보아 선교의 문이 가장 크게 열려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늘어나는 무역으로 동남 아시아, 중국 아랍권, 유럽, 아프리카, 호주, 미국 등과 교역이 활발하고 항공교통의 발달과 취향 지역의 확대로 지구촌 어느 지역이라도 불과 1-2일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졌다. 한국의 지리적 여건은 남은 지역들에 대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 온누리신문